

- 주요 뉴스: 미국 주가, 통화긴축 경계감 등으로 급락. 달러화는 초강세 지속
 - 독일 중앙은행,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증가
 - 중국 인민은행, 1년 및 5년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경기회복 촉진 등이 목적
 - 사우디아라비아, OPEC+는 유가 하락 방지를 위해 감산에 나설 가능성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 의장의 금리인상 의지 파력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2.1%], 달러화 강세[+0.7%],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등이 영향
 유로 Stoxx600지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불안 등으로 1.0%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매수 증가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9%,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긴축 유지 전망 등으로 3% 상회
 독일은 고물가 지속 예상 등으로 8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343.2원, +3.4원) 0.3% 상승, 한국 CDS 상승

		8/22일	8/19일	전일대비			8/22일	8/1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38.0	4,228.5	-2.14%	국채 금리 10y	미국	3.01%	2.97%	4bp
	유럽	433.17	437.36	-0.96%		독일	1.31%	1.23%	8bp
	중국	3,277.8	3,258.1	0.61%	CDS 5y	한국	37bp	36bp	1bp
	일본	28,795	28,930	-0.47%		중국	78bp	73bp	5bp
	한국	2,462.5	2,492.7	-1.21%	위험 지표	EMBI+	-	423	-
환율	달러지수	108.96	108.17	0.73%		VIX	23.80	20.60	15.53%
	유로화	0.9943	1.0037	-0.94%		WTI유	90.23	90.77	-0.59%
	엔화	137.48	136.97	-0.37%	원자재	구리	365.2	366.5	-0.35%
	위안화	6.8483	6.8176	-0.45%		금	1,736.3	1,747.1	-0.62%
	원화	1,339.8	1,325.9	-1.0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가, 통화긴축 경계감 등으로 급락. 달러화는 초강세 지속

- 8/22일 미국 주가는 이번 주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의지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전망 등으로 큰 폭 하락(S&P500 4137.99, -2.14%. 나스닥 12,381.57, -2.55%). 또한 금리인상 지속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도 투자심리를 저해. 기술주, 임의소비재 관련주 등이 특히 약세
- Infrastructure Capital Management의 Jay Hatfield는 연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기 위해 매파적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
- 로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9월 FOMC에서 0.50%p 혹은 0.75%p 인상 가능성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 한편 CME의 FedWatch Tool에 따르면, 0.75%p 인상 가능성은 전일에 비해 상승(47.0%→55.5%)
- 달러화지수 역시 전일비 상승(108.96, +0.73%)하며 '02년 6월 이후 최고치 기록. 특히 유로존의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되면서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와의 등가(parity) 이하로 하락(1유로당 0.9943달러, -0.94%)
- Caxton의 Thomas Brown은 최근 투자자들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전반에 위험회피 움직임이 강화되는 것으로 평가. 이에 더해 유로존의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따른 경기침체 위험이 달러화 강세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JPMorgan, 9월 FOMC 이후 큰 폭의 금리인상은 어려울 소지

- Mislav Matejka 스트래티지스트는 9월 큰 폭의 금리인상을 예상. 하지만 그 이후 연준이 시장을 놀라게 할 정도의 매파적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며, 이에 금융시장 안정이 회복되고 상당 기간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

■ 골드만삭스, 내년 주요국의 통화긴축에 의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

- 조기에 중앙은행이 금리인상 등의 긴축 조치를 취한 남아메리카,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아직 경기침체에 진입하지 않은 상황이 해당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설명

■ 독일 중앙은행,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증가

- 금년 가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상회할 것으로 관측.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가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년 겨울 총생산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

■ 독일 전력가격, 사상 최고치. 유로존 내 가스 가격도 급등 지속

- 8/22(월) 독일의 1MWh 가격이 장중 700유로를 넘어선 이후 사상 최고치 마감(665유로, +16.3%). 러시아산 가스 공급 감소 우려 등이 반영. 유로존 가스의 기준(benchmark)인 네덜란드 1개월 선물가격도 전일비 상승(276.75유로, +13.2%)

■ 중국 인민은행, 1년 및 5년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경기회복 촉진 등이 목적

- 1년 LPR 금리를 0.05%p 낮추고(3.70%→3.65%), 모기지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 LPR 금리는 0.15%p 인하(4.45%→4.30%).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및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 Capital Economics의 Sheana Yue는 인민은행이 통화완화 결정을 내렸으나 극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 금년 내 2회의 0.1%p 추가 인하가 예상되며, 4/4분기에는 지급준비율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

■ 중국 일부지역, 전력부족 등으로 경제활동 축소를 유도

- 쓰촨성은 폭염과 가뭄에 따른 전력난으로 공업용 전력의 사용 제한을 25일까지 연장. 이에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우려. 충칭시는 22일부터 쇼핑몰의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 정부는 전력 생산 확대를 위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확대

■ 사우디아라비아, OPEC+는 유가 하락 방지를 위해 감산에 나설 가능성

- 압둘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 장관은 선물시장에서 유동성 부족 및 변동성 확대가 발생하면서 현물시장과의 괴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OPEC+가 생산을 줄여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언급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2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시카고 연은 전미경제활동지수: 0.27, 6월(-0.25), 예상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건조한 소비자 지출, 양호한 가계 재정 등에 기인 - Financial Times

(Anxious US consumers carry on spending regardless)

-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6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심리는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 과거 이러한 경우 소비는 10% 이상 감소. 그러나 월마트 등 소매업체의 7월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이는 건조한 소비를 시사
- 고물가가 소비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낮은 실업률,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가계의 저축 및 현금보유가 증가하면서 실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 다만 소비자들은 긍정적 소식보다 부정적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물가상승이 억제되어도 신속한 소비심리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연준의 선제적 지침,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는 문제가 내재 - 블룸버그

(Fed's Forward Guidance Is Increasing Market Volatility)

- '08년 연준은 시장 충격과 변동성 축소를 위해 선제적 지침을 제시. 하지만 경제지표에 의존하는 연준의 경제성장 및 금리 전망은 정확도가 매우 낮았으며, 이는 오히려 금융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유발
- 1994년에는 연준이 예고 없이 긴축을 단행했으나 시장 변동성은 오히려 감소. 반면 최근 연준의 인플레이션 예측은 시장 불안을 확대. 이에 파월 의장의 제안과 같이 향후 선제적 지침 제시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날 전망

■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유럽과의 무역관계에 부정적 - Financial Times

(Car subsidies deliver electric shock to US-EU trade relations)

■ 일본은행, 소비자물가 추가 상승 시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은 어려울 가능성 - 블룸버그

(When Too Much Inflation Is a Long-Awaited Victory)

■ 중국 인민은행, 성장둔화 우려 및 부동산 침체 등으로 추가 금리인하 필요할 소지 - WSI

(Chinese Banks Cut Rates to Spur Economic Growth)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